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일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제18375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9년 5월 25일 (음력 5월 2일) 월요일

비 아랑곳않는 조문행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틀째인 24일 오후 빈소가 차려진 김해 봉하마을에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문객들이 비를 맞으며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봉하마을=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盧 前 대통령 국민장으로

29일 영결식…李대통령 봉하마을 조문키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민장(國民葬)으로 거행된다.

〈관련기사 2·4·5·6면〉

24일 정부와 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장으로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치르기로 합의했다.

공동 장의(葬儀)위원장은 정부와 유가족 측이 희망하는 복수의 인사가 공동으로 맡게 된다. 장례 기간은 서거일인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7일간이며, 영결식과 안장식은 29일 김해시 소재 진영공설운동장과 봉하마을에서 각각 거행된다.

또, 고인의 유지에 따라 화장을 하기로 했으며, 영결식이 있는 29일에는 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고 전국에 분향소를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후 2시30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계획안'을 상정, 처리했다.

국민장은 김구 전 임시정부 주석, 장면 전 부통령, 신익희 전 국회의장, 조병옥 박사, 육영수 전 대통령 부인 등 지금까지 12차례 치러졌다. 가장 최근 장의위원회가 꾸려진 것은 지난 2006년 고 최규하 전 대통령 서거 때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문 방식과 관련, 봉하마을에 차려진 분향소를 직접 방문해 조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이 봉하마을 분향소를 방문, 직접 조문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조문 시기 등은 여유를 갖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현지의 격앙된 분위기를 감안, 경호대책 마련 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장(國民葬)이란=국장이나 국민장은 대상을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인물로 한다는 점에선 같다.

그러나 국장은 장의 기간이 9일 이내, 장의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인 데 비해 국민장은 장의 기간이 7일 이내, 장의비용은 일부만 국고에서 보조한다.

또 국장은 장의 기간 내내 조기를 달고 장례일 당일 관공서는 휴무하지만, 국민장은 당일만 조기를 달고 관공서 휴무는 없다.

2015 U대회 성공 개최 ❶ 이제부터 시작이다

시설 보완·'국제매너'시민 광주를 업그레이드 하자

광주시가 두 번의 도전 끝에 '2015하계 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광주·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종합경기대회인 U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려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남은 과제를 세차례로 나눠 진단해본다. 〈관련기사 3·18면〉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현지 실사단이 지적한 시설 측면의 보완이 급선무다. 안정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특별법 제정, 호텔 등 편의시설 추가 설치 등도 필요하다. 2012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완공과 함께 문화수도로 거듭날 광주가 이를 3년 뒤 유니버시아드 개최와 어떻게 연계해 광주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지도 관심사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와의 협력 방안 등을 통해 광주·전남이 '하나'가 돼 서로 국제적인 이벤트를 성공리에 치러냄으로써 '상생발전'도 이뤄내야 한다.

무엇보다 세계 170여 개국, 1만여명에 이르는 외국의 대학생과 임원진을 맞이해야 하는 광주시민들이 '국제시민'으로서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단순한 성공 개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의 업그레이드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는 시설(하드웨어)과 운영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분리해, 순차적이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광주시민·전남도·정부와의 지속적인 논의·대화를 통해 지역 내 산재돼 있는 에너지를 모아가면서, 대회를 통해 분출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서정훈 사무처장은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광주의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도시발전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시민들 역시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자원봉사, 기초질서 지키기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시민참여형 대회를 만드는 데 일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연계한 문화 유니버시아드(Culture Universiade), 기존 체육시설을 활용한 친환경 경제대회(Ecoversiade), 광주의 대표산업인 광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연계한 최첨단 IT 대회(Technoversiade),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 정신을 실현하는 평화와 화합의 축제(Peaceversiade)로 개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구축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중국이 북경올림픽을 통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문화적 역량을 과시한 것처럼 광주도 아시아의 문화중심으로서 문화와 산업도시의 면모를 세계에 홍보, 세계도시 광주의 성장 가능성을 활짝 열게 될 것"이라며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통해 세계에 광주를 마케팅,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는 전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호남권 최초로 국제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만큼, 광주시, 지역민 등이 지역의 장기적인 미래상을 고민하면서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영어 강사 7명 의심증상·어린이 3명 추가 확인

신종플루 급속 확산 비상

하루 동안 6명의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집단 발병한 건물에서 함께 거주한 영어강사 7명에게서 의심증상이 나타나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또 24일 새벽 뉴욕에서 입국한 어린이 3명도 추정환자로 분류돼 격리병상으로 이송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5~10번째 환자와 같은 오피스텔에서 거주한 7명에서 추가로 의심증상이 나타나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별도의 시설에서 격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5번째 환자인 미국인 여성(23)과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영어강사들을 추적 조사하던 중 의심증상이 관찰됐다.

한편 영어강사 집단 발병과는 별개로 24일 새벽 뉴욕발 아시아나항공 OZ221편으로 입국한 아동 3명도 추가로 추정환자로 분류돼 국가지정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아동 3명은 한국인 부모와 함께 이날 새벽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으며 기내에서 의심증상이 관찰돼 기내 검역을 받았다. /연합뉴스

신안 다도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뛰어난 경관과 식생, 갯벌 등을 고루 갖춘 전라남도 신안 다도해 일대와 북한의 묘향산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키도록 보전할 가치가 있는 생태계를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곳이다.

환경부는 유네스코, 제주도와 함께 25일부터 29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하는'제21차 인간과 생물권계획(MAB) 국제조정이사회(ICC)'에서 신안 다도해 일대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공식 승인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환경부와 전남도는 2008년 9월 흑산도와 홍도, 비금도 등 신안군 지역의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생물 다양성이 뛰어난 420여개 섬 지역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신청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현재 105개국 531곳이 지정됐으며 국내에서는 1982년 설악산과 2002년 제주도가, 북한에서는 1989년 백두산과 2004년 구월산이 각각 지정됐다.

MAB 34개 이사국 및 유네스코 관계자 등 국내외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이사회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 신규 지정 외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MAB 역할 강화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